

## 고품질 · 철저한 납기준수, 고객 신뢰 쌓아

### 해외선진 기업와 기술제휴, 정보 인프라 구축



이 상 대  
양림문화사 대표

국내 그라비아 업계는 최근 산업재에 대한 급격한 소비자 욕구와 가치변화, 환경에 대한 규제 속에서 다품종 소르트의 심화, 단납기화, 고품질화, 저가격화, 제품에 대한 환경친화성 및 안정성 요구 등 중첩된 당면과제로 인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그라비아 업계는 프리프레스의 디지털화, 인쇄결점 감시 장치, 잉크자동공급 및 자동조색 장치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용제 자동회수 및 재활용 장치, 수성 잉크 사용 등 다각적인 인쇄기술 개발에 열중이며 이는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의 인쇄기술로 평가받아 온 그라비아 인쇄, 특히 식품류 등의 포장에 쓰이는 연포장 인쇄기술은 현재, 단순히 포장 또는 식품 보존의 도구라는 1차적 기능에서 보다 확대돼,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매개체로써 그 기능



▲ 금천구 가산동으로 이전 오픈한 양림문화사



◀ 출력 시스템 점검

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포장재의 인쇄공정에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제판 업계 역시,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화를 특징으로 디자인에서 화상처리를 비롯한 모든 프로세스가 컴퓨터화되고 필름 대신 디지털데이터로 직접 전자조각 또는 망점 그라비아실린더를 제작하는 전자동 무인 일관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다.

포장문화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선진 시스템을 도입, 기술 및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제판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양림문화사(대표 이상대)를 찾았다.

양림문화사는 1984년 창립된 이래, 1987년 10월 서울 중구 주자동을 거쳐 1995년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확장 이전하며 발전해 왔다.

2000년 싸이텍스 돌래프 출력기를 도입하고, 2003년 4월 독일 HELL사 K-500 전자조각기를 도입한 양림문화사는 지난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 IT캐슬로 이전하며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맞고 있다.

그라비아 제판업계 6여년간 근무를 계기로 양림문화사를 창립하게 된 이상대 사장.

사진제판에 주력해 왔던 양

림문화사는 2년전부터 동판제판 설비시스템을 도입, 디자인에서 동판까지 'Flow 최적화'로 효율성을 자랑한다.

창립 이후, 1997년 IMF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양림문화사의 꾸준한 발전 한편에는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 온 이상대 사장의 경영 방침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고품질과 철저한 납기 준수로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는,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화'되며 급변하는 인쇄환경 아래서도 양림문화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 YANG RIM

패키지디자인에서 동판제판 까지 'Full Digital System'의 완벽한 활용을 통해 'Total Package Process System'을 실현하고 있는 양림문화사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두루 섭렵, 발전하고 있다.

동판조각의 최신 시스템인 조각기 Helio K-550과 일본 자동연마시스템을 추가로 도입, 최하위점(CELL) 재연력 향상과 인쇄물의 사이즈 문제 해결로 사진 제판에서 동판제판까지 책임지고 생산하고 있

는 것.

특히 양림이 도입한 독일 HELLSA K-500 전자조각기는 컬러 및 그라데이션 등 연포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양의 표현이 가능해진 최첨단 전자조각기로 조각용 데이터 보관 및 관리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HELLSA만의 데이터컨트롤 시스템을 자랑한다.

작업 관련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재작업시 초기 작업과 동일한 환경 설정

및 품질 개선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대 사장은 “질 높은 제판기술의 공급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설비 및 인력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완벽한 데이터 관리에 의한 품질 관리 및 정확한 제품의 신속한 납기 준수는 궁극적으로 고객 신뢰 기업인 '양림문화사' 발전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전했다.

특히 양림문화사는 선진 기술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일본 제판 전문회사인 TOPCS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연구인력을 파견, 이미 올해 3차례에 걸쳐 기술 연수를 마친 상황이다.

“해외 선진 기업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변하는 인쇄용 제판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는 이상대 사장은 앞으



▲ 애사심을 기반으로 양림 발전을 꾀하는 직원들

로도 최신설비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인쇄환경에 앞장설 계획이다.

‘품질 기업’의 대명사로 인정받아 국내 제판업계의 1인자가 될 포부를 갖고 있는 양림문화사.

이상대 사장은 “CMS가 정착할 때 양림의 발전 뿐만이 아닌 국내 제판업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사장은 “그라비아 인쇄업계가 존속하려면 코스트가 다운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납기일이 단축되어야 하고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잔욕 잉크가 많이 발생하고 디지털 색교정지와 동일한 색조가 재현되지 않는 등 인쇄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이미 유럽의 선진 디자인/실사출력/인쇄 시장에서는 CMS(Color management system)라는 신 개념의 색상보정 시스템을 도입, 최대한 디자이너가 의도한 칼라를 재현하는 기술이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CMS Tool들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CMS를 통해 인쇄

기의 가동율 향상과 인쇄 정지 시간의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코스트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인쇄, 잉크, 제판업계가 3위 일체될 때 비로소 진정한 CMS가 정착될 것”이라며 “양림문화사는 CMS를 통해 고품질 컬러 인쇄물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림문화사는 초정밀 제판기술을 구현하여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기술 개발에 전념함으로써 고객 신뢰의 기업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CMS를 통해 인쇄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며 업계를 선도할 포부를 갖고 있다.

현재 업계 한편에는 난립이 야기시킨 저가 과당경쟁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존공생하며 업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하는 이상대 사장. 고품질, 신뢰, 내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양림문화사의 그 발전을 주목해 본다. [ko]



▲ 양림은 철저한 품질우선주의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박초혜 기자